

제7회 세계인문학포럼

2023. 11. 8.(수) - 11. 10.(금)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5A홀 / 321~326회의실



THE 7TH WORLD HUMANITIES FORUM

논문 자료집
PROCEEDING BOOK

관계의 인문학:

소통·공존·공감을 위하여

The Humanities of Relationships:

Toward Communication, Co-existence, and Empathy



09:30~11:30

분과회의 세션 3

324호

3 - 4 전쟁 그리고 타자(others)에 대한 적대와 환대

사회 정대훈 부산대학교

- 발표
1. 김상수 육군사관학교
자율무기체계에 대한 적대와 환대의 개념적 고찰 : 도덕적 행위자 개념을 중심으로
 2. 조은영 육군사관학교
적(敵)이 없는 전쟁은 가능한가? - 맹자(孟子) 의전론(義戰論)을 중심으로 -
 3. 서동하 육군사관학교
세익스피어의 『코리올레이너스』를 통한 환대 불가능의 가능성 모색
 4. 이영주 육군사관학교
공존불가능성을 횡단하는 인간에 대한 고찰 : 우크라이나 전쟁 난민을 예로
 5. 문현영 육군사관학교
'우리'안의 타자, 여군 : 미래전투원은 (탈)젠더화 될 것인가?

토론 김지훈 부산대학교 김주희 부경대학교

325호

3 - 5 종교미술의 기능 : 신과의 소통, 인류 공생의 미학

사회 허형욱 국립중앙박물관

- 발표
1. 강희정 서강대학교
상생을 위한 소통의 문자 : 주문, 상징, 그리고 미술
 2. 양은경 부산대학교
마조 신앙의 확산 : 해상 안전과 해양공동체의 융합 그리고 상생
 3. 한유나 서울대학교
순례여행을 위한 공감적 소통 : 15-16세기 독일어권 <사도들의 이별> 도상
 4. 이승희 순천대학교
조선후기 종교의 소통 : 관우신앙과 유불도교 신앙의 통합
 5. 송은석 동국대학교
신라의 전통 厝葬과 불교 造塔 신앙의 결합 : 전 황복사 사리함기의 "厝" 기록 검토

토론 한정호 동국대학교 신광희 동국대학교

326호

3 - 6 나와 타자, 공존과 상생

사회 류재한 전남대학교

- 발표
1. 최의숙 로마 라 사피엔자 대학교
소통-공감을 위하여 : 인간과 공간이 갖는 문화의 공존과 상생
 2. 강지훈 부산외국어대학교
디지털 지도를 통해 보는 공존과 상생의 지중해 역사 -중세 르네상스를 중심으로-
 3. 신은경 우석대학교
문학에 나타난 인간과 개의 공존 양상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의 비교를 중심으로
 4. 현남숙 성균관대학교
비인간 존재자들과 함께, 어떻게 세계를 알아가야 하는가? - 포스트휴먼 지식을 위한 몇몇 시도들

토론 손일수 부산대학교 전성현 동아대학교

11:30~11:50

휴식

소통·공감을 위하여 :

인간과 공간이 갖는 문화의 공존과 상생

Toward Communication and Empathy :**Cultural Co-existence and Co-prosperity of Human and Space**

최익숙 Oui Suk CHOI

로마 라 사피엔자 대학교

University of Rome La Sapienza

국문요약**1. 본문 연구배경**

글리상 (Glissant)¹⁾에 따르면 각 토속 전통문화는 지속적인 지향성과 전통승배 고수 존중하는 토양에 리즘(rhizomatic)식 문화 토착화가 된다. 문화 리즘식 뿌리가 서로 만나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성격의 돌연변이 문화가 탄생된다²⁾. 특히 식민지 토착민이 추구해야 하는 인간 자체성과 개인 주체성 복구³⁾ 및 지배문화의 재인식 과정에서 복합 문화 (composite cultures) 성격을 적나라하게 보이는데 이 문화 형성 과정을 크레올 문화과정 (process of creolization)이라고 한다.

2. 연구 방법

인간의 기본 인성을 대표하는 '친절'은 세종대왕의 한글 창조 동기 부여에도 잘 보여 주고 있다. 이 '친절'은 한글이 한국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굳히는 과정에서

백성들이 언어 구사 표현 도구라는 단순한 정의를 벗어나 양반들 못지 않는 사교의 세계로 이끄는 공존·상생 역할을 하고 있다. '친절'은 모든 인간에게 공존하고 있는 정서⁴⁾이며, '사랑·인류애 정신'은 그것이 '상생'된 것이다. 이 상생된 감정은 공생화 되어 다시 인간을 이끌어 주는 모체가 되는 공존 성격을 띠게 되며 또 다른 '사랑·인류애 정신'이라는 상생을 성립한다.

이탈리아에 단테, 움베르토 에코⁵⁾가 있다면, 한국에는 이병주⁶⁾, 정소성⁷⁾, 이승우⁸⁾, 또한 최윤⁹⁾ 등이 새로운 상생을 시도한다. 빅토르 위고가 '새로운 것을 찾는 여행은 있는 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¹⁰⁾'이라고 한 것처럼 각 문명의 특색은 각 개인이 모두가 문화의 뿌리임을 자각할 때 이루어진다. 또한 리즘 (rhizomatic)식 문화 교류점에서만 문화 공존·공생은 '상생'하게 된다고 하겠다.

3. 연구 결과

문화, 예술에서 보이는 공존, 공생 요소는 각 개인이 문화 뿌리의 실뿌리라는 자각이 중요하다. 각 개인 실뿌리가 자체성과 주체성을 고수하면서 다른 실뿌리를 존중할 때 공감·공유라는 감정 매개체를 통해 공존과 공생이 있는 시공간으로 이전시켜 준다. 타 실뿌리와의 만남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하고 공존과 공생을 느끼는 감정이 길어지면서 공간이라는 것으로 상생하게 되며 토양이라는 조건으로 갖추게 된다. 이 토양에서 다시 예상 불가능한 크레올 현상을 통해 창조성 시학적 요소가 있는 시공간을 거친다.

1) Édouard Glissant (*Sainte-Marie, 21 settembre 1928 – Parigi, 3 febbraio 2011*). 카브리 (caribe)해 지역 문화성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문학 비평가.

2) Édouard Glissant *«Poetics of the Different»*에서 말했다.

3) Ania Loomba *«Colonialism/Pstcolonialism»*에서 말했다.

4) 이탈리아 거장 시인 단테(Dante Alighieri)는 시에서 사랑하는 베아트릭체 (Beatrice)를 'Kind Woman'으로 묘사.

5) Umberto Eco (Alessandria 5 gennaio 1932 – Milano 19 febbraio 2016) *«장미의 이름 Il nome della Rosa»*. 유럽의 현·근대 문화를 '거인 어깨에 앉아 있는 난쟁이'라고 표현했다. 즉, '거인은 유럽의 화려했던 과거'를, 거인 어깨 위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난쟁이는 지금의 유럽인'이라는 표현이다.

6) 실존주의 문학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알렉산드리아»*.

7) 자아 성찰을 중점으로 다룬 작품으로 꼽히는 *«아테네로 가는 배»*.

8) *«미궁의 추측»*에서 문학가의 선구자적인 세계관은 미래를 예고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

9) *«하나코는 없다»*. '코(가) 하나'라는 일반적 한국 언어 문화에서 앞뒤 순서를 바꾼 놀이. 포르투갈 문학 대표 이탈리아 문학가 안토니오 타부끼(Antonio Tabucchi (Pisa, 24 settembre 1943 – Lisbona, 25 marzo 2012). 뒤집기 시학 (詩學, reverse poetics)으로 유명한 *«뒤집기 게임 과 단편집(The Reverse Game and Other Stories 1981)»*이 있다.

10) The journey of new research is to look with different eyes.

Background

According to Glissant¹¹⁾, every traditional indigenous culture continues through rhizomatic inculturation based on its continuous orientation and adherence to traditional worship. The meeting of roots gives life to a mutant culture with new and unexpected characteristics; a new and unexpected culture that is created in the process of restoring human and individual identity and re-perception of the dominant culture pursued by indigenous populations who had to pave the way for a new world after colonization. Cultures created through this phenomenon typically exhibit characteristics of composite cultures. This phenomenon is called the "creolization process" in the formation of culture.

Methods

King Sejong's empathy/kindness towards ordinary people plays an important role in coexistence, especially in the process of consolidating Korean cultural identity and subjectivity. Ordinary people can enter the world of noble thought, that of the aristocrats. "Kindness" is an emotion that coexists in all human beings and the "spirit of love and humanity" is the form of its very "coexistence".

A representative European example is Umberto Eco¹²⁾. Jeong So-seong¹³⁾, Lee Seung-woo¹⁴⁾, Choi Yoon¹⁵⁾ and the existentialist Lee Byeong-ju¹⁶⁾ are Korean examples of such cultural coexistence. It reminds us also of Victor Hugo who said: "The journey of new research consists in looking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Results

The elements of coexistence and symbiosis seen in culture and art are important to recognize that each individual is the common thread of cultural roots. When each individual thread respects the other threads while maintaining their own identity, it is transferred into the space and time of coexistence and symbiosis through the emotional medium of empathy and sharing. The encounter with other threads leads to a moment of choice and the feeling of coexistence.

11) Édouard Glissant (21 September 1928 – 3 February 2011) a French writer, poet, philosopher and literary critic originally from Martinique. He stands out a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figures in Caribbean culture and in Francophone literature.

12) «The Name of the Rose» described modern and contemporary European culture as "a dwarf sitting on the shoulders of a giant". The giant represents Europe's splendid past, and the dwarfs looking out at the world from the giant's shoulders represent the Europeans of today.

13) «Boat to Athens».

14) He is a work focusing on the self-reflection and pioneering worldview of a literary figure in «Labyrinth's conjecture».

15) «There is no Hanako». The game from "Ko (the nose)" ga Hana (one)' to 'Hana (unique)ko' (nose) ga. Coexistence through a work that changes the order of the grammatical of the Korean language

16) «Alexandria»

1. 리즘식 예측 불가능한 변화

세상에는 다국적, 이질적, 보수적 등 여러 가지 성격의 문화가 번성했다가 사라져 갔고 지금도 공생하고 있다. 카브리(caribe)해 지역 문화성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문학비평가 글리상(Glissant)에 의하면 각 토속 전통문화는 지속적인 지향성과 전통송배 고수 존중 성격을 바탕으로 하여 리즘(rhizomatic)식 문화 토착화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이는 즉, 모든 고유한 특성의 문화전통은 리즘식 뿌리를 지니고 있으며, 각 그 문화 뿌리를 소유한 개인 및 집단은 다른 토양 문화의 뿌리를 접하게 되면서 침투, 불화, 거부, 배척, 부작용, 흡수, 소화, 융화, 조화되어 가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 속에서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성격의 문화를 탄생시키게 한다고 한다¹⁾. 특히 식민지화의 결과로 신세계를 개척해야만 했던 토착민이 추구해야 하는 인간 자체성과 개인 주체성 복구²⁾ 및 지배문화의 재인식 과정에서 생성되는 예상치 못한 뜻밖의 새로운 문화 탄생을 말한다. 이런 현상을 거쳐 이루어진 문화는 대표적으로 복합 문화(composite cultures) 성격을 적나라하게 보이는데, 글리상은 이 문화 형성 과정을 크레올 문화과정(creolization process)이라고 명했다³⁾.

현존하는 다양한 문화 형태 중에서 이 학설을 토대로 예를 들어 보자면, 다문화⁴⁾ 사회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으며 가장 이상적으로 융합된 사회로 손꼽히는 브라질 문화와 복합 문화를 대표하는 쿠바 문화는 상이한 부분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다문화는 여러 형태의 문화가 함께 공유하여 상호 공존하는 것으로 사실상 각국마다 지역별로 보이는 문화 형태이다. 한국에 있는 이태원 문화, 인천 차이나타운과 해외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코레아타운 문화를 그 예로 꼽을 수 있다. 이에 반해 복합 문화는 A라는 문화의 뿌리와 B라는 문화의 뿌리가 한정된 조건의 지역 토양에서 서로 만나면서 예상 불가능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A와 B가 서로 충돌되고 적응되어 가면서 자연스럽게 침투, 흡수되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 중에 소화된 것과 이질감으로 인해 거부된 성격이 새로운 C문화를 탄생시킨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C문화는 A와 B의 문화가 서로 침투-거부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예측하지 못한 변수 성격의 돌연변이를 일으켜 생성된 새 문화형태이다. 그렇다면 이 복합 문화를 하이브리드 문화(Hybrid Culture)라는 말로도 교체가 가능한가 하는 의문점이 생긴다. 하이브리드 문화⁵⁾의 정의를 보면 문화 속에 다양한 이질적 문화 형태가 함께 섞여 공존하나 돌연변이의 성격을 지니지 않는 것이라 하겠다.

사실 세계적으로 정치, 역사의 수난 속에서 많은 문명이 화려하게 꽃을 피웠다 사라진 흔적의 경우도 흔하게 보인다. 인간은 자연이라는 지역 토양과 접하면서 조화를 이루어 공생-공존하려는 생존성을 보여 왔고 그 속에서 '휴먼 정신의 자체성'을 지향-유지하려고 했다. 흔히 '각 인간은 걸어 다니는 이동 박물관이다'라고 비유되며 '한 인간의 죽음은 한 소우주 소멸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각 인간의 삶은 다양하고 다채로운 색깔을 띄고 있다. 이 말은 모든 각 개인의 생은 많은 '시공간적 경험이 함유된 자서전들을 소중히 보관하고 있는 책방'이라는 소리이다. 즉 각 인간 개인 자체는 정체성이 상이한 개별 창조자라는 전제 하에서 각 경험과 지식, 문화를 소유한 주체성 그 자체라고도 하겠다. 이는 한국의 전통 관념인 인간은 소우주이며 이 소우주가 모여 대우주를 형성하는 것을 인간 사회학 차원에서 표현된 말이라고 하겠다.

마야 문명, 미노아 문명, 올멕⁶⁾ 문명, 잉카 문명의 소멸이 보여 주듯이 한 문명의 소멸은 내부의 뿌리가 갖는 저력이 외부의 요인에 비해 비약할 경우 상생하지 못한 대표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 준다고 하겠다. 한 문명의 탄생은 역사의 한 장리의 탄생을 펼친다. 문명이 사라지면서 그 문명을 대표하는 문화 요소들도 사라지는 것 또한 보통이다. 정말 그럴까? 지구는 원래 5개 육지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독일 지질학 역사 학자 알프레드 베게너⁷⁾에 의하면 지구가 원래는 한 덩어리인 판제아(Pangea) 육지와 바닷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 후 지질 변동 현상으로 말미암아 5개로 나누어지게 되었고, 갈라진 이 5개 육지 사이는 단지 바닷물로 채워져 있을 뿐이라고 한다. 물로 나누어진 육지는 과연 정말 각각 동떨어진 육지로 인종도 다른 것일까? 같은 하늘 아래에서 공존하는 인종이었지만 각 토양의 기후 자연 조건으로 피부색과 외모, 문화도 환경지역에 맞추어 살면서 '돌연변이화'한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지금의 지구는 육지가 바닷물로 채워져 시각적으로는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상 실질적으로 바다 해저 밑으로는 아직도 서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는 것일까? 단지 바닷물이 채워진 곳은 육지가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물을 담고 있는 커다란 땅구덩이는 아닐까? 그렇다면 상상해 보면 5개 육지로 구성된 이 지구에서 사는 오형제는 서로 뿌리로 연결된 한 우주에서 태어난 자식들이 아닐까? 단지 공간적 거리 때문에 토속 기후와 자연으로 각 형제들의 개성이 다르게 표현되어 지금까지 흘러온 것은 아닐까?

1) Édouard Glissant (21 September 1928 – 3 February 2011) a French writer, poet, philosopher and literary critic originally from Martinique. He stands out a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figures in Caribbean culture and in Francophone literature. Poetics of the different: 카리브해 평론가에 따르면 "전통문화는 연속성과 문화 존중의 한 형태로 이는 전통의 뿌리가 된다. 문화적 정체성은 리즘식 뿌리의 형태를 가지고 다른 뿌리와 충돌(크레올화 과정)을 통해 예측 불가능 형태의 새로운 문화로 생성하며 '복합 문화' 성격을 가진다".

2) Ania Loomba, *Colonialism/postcolonialism*

3) Glissant 이 과정을 예측 불가능한 성격을 지닌 "크레올화 현상"이라고 한다. 크레올화는 혼합화와는 달리 예상치 못한 부가 문화가치를 갖는다고 한다.

4) Cultural pluralism or multiculturalism

5) 특정 문화 속에는 서로 상이한 문화적 특성이 혼합되어 연출된 종합 문화 성격을 갖는다.

6) The Olmec civilization

7) 알프레드 베게너(Alfred Wegener 1880-1930)의 지질학 이론 '대륙이동(The continental drift)'.

한국 속담 중 '뿌리가 다르면 줄기가 다르고 줄기가 다르면 가지가 다르다'라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이런 상이한 뿌리가 어느 우연한 순간에 서로 만날 경우는? 토양과 기후로 변이 변수를 지닌 이 뿌리가 서로 닿게 되면서 연결, 접촉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어떤 뿌리의 특성 요소가 다른 뿌리와 만나 일으키는 비오 화학 반응(8)을 생성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 줄기도 다르며 그 가지도 다를 것이다. 열매 또한 다른 것이 당연하다. 다만 뿌리가 시각적으로 쉽게 눈에 띄지 않는 대신에 줄기, 가지와 열매는 예측 불가사위한 새로운 형태의 종자로 기존의 미를 버리고 새로운 시학을 통해 단장해지는 미로 돌연변이화 할 것이다. 그렇듯이 인간이 살면서 탄생과 죽음은 모두 인식하는 유일하게 확실하는 부분이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공간과 시간 속에서의 각자가 펼쳐가는 삶의 모습은 예측 불가능한 부분이다. 다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주어진 사회적 규칙, 조건 속에서 휴먼 정신을 잃지 않고 이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싶은 욕망으로 공간과 시간을 최대한 유용하게 활용하고자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할 뿐이다(9).

흔히 우리가 이상적인 삶이라고 할 때는 인간의 기본 성향인 '친절함(10)'에서 출발해서 '사랑·인류애 정신'으로 승화된 인생 여정을 말한다. '친절'은 모든 인간 행위의 출발점이며 인간 삶을 가장 신성하게 영위하도록 하는 모체이기도 하다. 즉, '사랑·인류애'는 신의 경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숭고하고 성스러운 감정으로 행해지는 행위를 말한다. '친절'은 많은 인간의 기본 인성을 대표하는 말로 잘 알다시피 세종대왕의 한글 창조가 '어린 백성을 어여뻐 여겨(11)'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세종의 '친절'은 한글이 한국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굳히는 과정에서 백성들이 언어 구사 표현 도구라는 단순한 정의를 벗어나 양반들 못지 않는 사교의 세계로 이끄는 공존·상생 역할(12)을 하고 있다. '친절'은 모든 각 개인이 인생 속에서 행하는 행위의 시작점이다. '친절'은 모든 인간에게 공존하고 있는 정서(13)이며, '사랑·인류애 정신'은 그것이 '상생'된 것이다. 이 상생된 감정은 다시 인간을 이끌어 주는 모체가 되는 공존 성격을 띠게 되고 그 프리즘 색깔이 또 다른 '사랑·인류애 정신'이라는 상생을 성립 한다(14). 이 관점에서 수많은 지식인과 문학가들은 이 상생을 위해 많은 노력과 그들의 공헌을 기여해 왔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탈리아 작가이며 평론가인 움베르토 에코를 예로 들자면 그의 저서 '장미의 이름(15)'이라는 저서에 유럽의 현·근대 문학 성격을 '거인 어깨에 앉아 있는 난쟁이'라고 표현했다. 즉, 거인은 유럽의 웅장하며 거대하고 화려했던 과거를 의미하며, 거인 어깨 위에서 세계를 바라보는 난쟁이는 지금의 유럽이라는 표현이다. 그렇다면 문화의 공존 단계에서 문화 전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새로운 요소가 첨가된 새 문화 성격의 상생화를 위해 한국의 문학가들은 어떤 생각을 품었고 또 작품 속에서 어떻게 그려 왔을까?

2. 공존과 상생의 관계 문학 모습

실존주의 문학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이병주는 한국의 파토스(16) 열은 서양 악기 클라리넷과 스페인 문화 예술 표현인 스페인 춤과 이집트인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연주를 통해서만 새롭고 진정한 예술적 혼의 꽃을 피울 수 있다고 했다. 즉, 숭고한 예술의 정수는 한국인이 외국 음악 악기를 통해서 한국적 정서 표현을 얼마만큼 제대로 완벽하게 예술로 표현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우주 언어인 예술은 언어, 문화와 인종이 다른 사람들 속에서도 어떤 악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보편적 감정이 예술이라는 언어로 표현, 전달되어 공감을 이루며 느낀 시점에서 함께 공생하고 있다는 것을 재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보편적인 감정이 담긴 예술이라는 형태로 상생된 이것을 통해 나이, 국적, 문화 차이와는 상관없이 그 누구에게나 예술 그 자체로서 정확하게 전달될 때 진정한 예술의 가치가 있다는 뜻이다(17). 다시 말해서 한국과 같은 문화 감정과 정서가 비슷한 스페인 춤에 이집트 연주가 만나 호흡이 조성될 때 '각 상이한 문화 요소'가 예술 그 자체로 승화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하겠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한국의 정서를 자국어가 아닌 다른 언어 도구를 통해 표현될 때 얼마만큼

8) Bio-Geo Chemical reaction

9) 김기덕 작품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에서 호수 한가운데 있는 사찰은 연꽃을 연상하게 한다. 진흙탕에 뿌리를 내리지만 탁한 물 위에서도 꽃을 물위로 피우는 순수함의 정수를 상징하기도 한다.

10) 맹자의 惻隱之心. 가엾게 여기는 마음 또는 동정심으로 인간이 갖는 형이상학적 (metaphysics or transcendental concepts) 감정이며 이 감정들이 담겨 외형적으로 표현 되는 것은 '친절 (kindness)'이다.

11) 훈민정음 언해본 世宗宗憲御製製訓民正音 音韻字母發源 倣中國國예달아 文文字字와로서스 못디아니 홀씨어런전초로어린百백姓성이니르고저홍배아셔 .도 모.츄내제쁘들사러퍼다문홍노미하나라내아를 為왕향어어엿비너겨새로스물여들字字를 鳴.7노나사름다히싸수비니겨날로부메(便便安한리 하고저 홀씨 르미나라

12) 이와 비슷한 문화 상생을 시도한 작품은 단테의 신곡이다. 신곡은 특정 지배층 문화를 대표하는 라틴어 대신에 이탈리아어로 이탈리아 서민 생활의 정서부터 시작하여 형이상 학적인 신학 사상까지 유감없이 보여주는 작품으로 라틴문학의 정수에 뒤처지지 않는 이탈리아어의 위력을 보여 주는 야심작이다.

13) 이탈리아 거장 시인 단테(Dante Alighieri)는 '친절한 눈길'을 가진 베아트리체 (Beatrice)를 찬양한다: «Tanto *gentile* e tanto onesta pare / la donna mia quand'elli altrui saluta».

14) 김기덕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나 림 마살 연출 «게이샤의 추억»을 대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15) Umberto Eco, *The Name of the Rose*, 샤르트르의 버나드(Bernardo di Chartres)가 쓴 것으로 알려진 솔즈부리의 요한 (Giovanni of Salisbry)의 라틴어 구절을 인용한 것으로 "우리는 거인의 어깨 위의 난쟁이와 같아서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고 더 멀리 볼 수 있다. 오늘날의 유럽 문화와 전통 관계의 성격을 비유하여 한 말.

16) Korean pathos

17) 윌리엄 버터 (William Bulter Yeats 1865-1939): "내가 말하는 것이 당신에게 공감이 된다는 것은, / 단순히 우리는 / 같은 나무 가지들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서 또는 정신을 그대로 살려 표현할 수 있는가에 따라 한국 문화의 공생·공존이 '상생'이라는 새로운 동시성 성격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공존·공생 문화요소를 느낄 수 동시성 공간은 세계 각 상이한 문화를 서로 존중할 때만 그 예술의 뿌리에 닿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 접목/만남 순간에 공간 시적 영감이 새롭고 창조적인 형태의 예술¹⁸⁾로 발족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다.

자아 성찰을 중점으로 다룬 작품으로 꼽히는 «아테네로 가는 배»에서 정소성은 민간 문화를 대표하는 인간 개인 각자가 세계 속에 뿌려져 있다며, 각 개인은 마치 소우주 박물관 그 자체라고 보고 있다. 세계에 공존하는 다양한 보편 문화를 접하면서 특히 한국 예술가들은 특별한 역사적 사명 의식을 가지고 한국 문화를 전수,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미의 고수와 전수는 여러 문화 요소가 만날 수 있는 곳에서만 유일하게 이루어진다고 강조하면서 이 공간 속에서만 한국의 열이 새로운 미가 담긴 형태로 단장하게 된다고 한다. 이는 도전에 굴하지 않고 10년간 유배 생활을 한 제임스 조이스와 단테의 울리시스의 투쟁정신¹⁹⁾, 튀르키예에 항쟁하는 그리스인을 지지한 바이런 시인, 서민의 아픔까지 사랑했던 빅토르 위고²⁰⁾작가, 샤를 보들레르, 무명시인으로 시간 속에 남기만을 바랬던 존 키츠²¹⁾ 시인에서도 상생된 예술 공존의 동일성을 우리는 쉽게 느껴 볼 수 있다.²²⁾ 이와 비슷한 맥락을 느끼게 하는 «나폴리 여행»에서 송원희도 한 문화의 특색은 예술작품, 예술가에 의해서만 생성, 표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공생하는 각 개인 자체가 각 문화 뿌리를 갖고 있다고 하며 진정한 예술의 가치는 예술가의 시적 창조력과 시민들의 공감의 연대 될 때만 진정한 예술 정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다.

«미공의 추측»에서 이승우는 문학가의 선구자적인 세계관은 미래를 예고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 관점에서 데달루스의 발명은 인간이 자연 조건에 부딪히면서 끊임없이 상상해 가고자 하는 '휴먼정신'을 대표한다고 보고 있다. 그렇기에 이카루스의 날개 시도는 실패를 무서워하지 않는 무한정의 상상이 펼쳐지는 인간의 의지 정신을 대표하는 휴먼정신이라고 그려 가고 있다.

또한 «하나코는 없다»에서 최윤은 '코(가) 하나'라는 일반적 한국 언어문화에서 앞뒤 순서를 바꾼 놀이를 통해 하나코라는 새 의미를 만들어냈다. 한국의 언어문화를 모르는 사람의 눈에는 아마도 일본어인 '하나(花 꽃)+코(子 여자)'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일상적이고 평범하게 습관되어 온 문화 속에서 거꾸로 뒤집어 일상적인 것을 새롭게 볼 때 많은 새로운 의미의 문화요소를 재발견하게 된다²³⁾고 강조하는 이 작품은 정한의 «수리 부엉이» 작품에서도 비슷하다고 하겠다. 빅토르 위고의 유명한 말 중 '새로운 것을 찾는 여행은 있는 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²⁴⁾'이라고 한 것처럼 각 문명의 특색은 각 개인이 모두가 문화의 뿌리임을 지각할 때 이루어진다. 또한 리좀 (rhizomatic)식 문화 교류점에서만 문화공존·공생은 '상생'하게 된다는 것을 잘 보여 주는 문학 작품이라고 여긴다.

3. 대중문화와 각 개인 문화의 상생 관계

그렇다면 오늘날 대중문화에서 보이는 한국 문화를 상생시킨 대표적인 작품 중에는 무엇이 있을까? 아마도 이민진 작가의 «파친코»를 손에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작가는 한국 문화 뿌리를 가진 한 개인으로서 미국이라는 새 토양 속에서 자신의 뿌리를 공존시켜려고 한 노력의 모습을 보여 주는 작품이다. 일본계 미국인과 결혼하여 생활하면서 내적으로 소화 흡수된 다문화 공존을 통해 개인 주체성을 보전해 가는 리좀식 크레올 문화생활을 본인도 모르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 공존 요소들은 타국으로 이민간 4대 역사의 시간을 뛰어 넘어가 한 공간을 상생해 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독자들은 이 상생 된 역사의 한 공간 속에 자유롭게 뛰어 들어가 마치 직접 그 시간 속에서 겪게 하는 감정을 본인이 직접 느낄 수 있게 구성된 작품이다. 시간 속 공간에서 투영되는 한 인간의 삶에 대한 몸부림을 적나라하게 비춰 볼 수 있는 보편적 공간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넓게는 한 개인이 강압적인 외부 조건으로 힘든 타향살이를 겪는 과정에서 주체성과 정체성을 다시 확인해 보려는 한 인간의 모습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적게는 지금의 세계 각국 속에 보여지는 한국인의 모습을 넓게는 타향을 등지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 가는 한 인간의 모습을 그려 나간 이 소설은 한국인의 4대에 걸친 아픔과 이상적인 삶을 추구했던 주체성을 문화의 '상생'으로 승화시킨 한 예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오늘날 한류의 문화를 어떤 각도로 보면 좀더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 쿠바를 상징하는 '룸바춤'이 있다면 한국에는 손꼽는 '사물놀이'가 그레올 문화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²⁵⁾ '룸바춤'이 아프리카인들의 실뿌리가 쿠바라는 지역 토속 전통 스페인

18) Édouard Glissant은 *Poetics of the Different*라고 부른다.

19) 단테 (Dante Alighieri) 지옥편, 26편.

20) *The Hunchback of Notre Dame e Les Misérables* by Vitor Hugo

21) John Keats (1795-1821) buried in Rome with a plaque on which was engraved: Young English poet, Here lies One Whose Name was writ in Water.

22) 평론가 임현영에 따르면 1950년부터 한국 문학가들이 그리스 신화에서 찾고자 하는 공존 요소를 니체, 카프카, 카뮈 등 프랑스 실존주의 문학에서 찾았다. 보편적 공생·공존 요소를 한국적 정서로 상생시킨 것으로 이문열 칼레파 타 칼라를 들 수 있다.

23) 포르투갈 문학 대표 이탈리아 문학가 안토니오 타부끼(Antonio Tabucchi (Pisa, 24 settembre 1943 – Lisbona, 25 marzo 2012). 반전 시학 (反轉 詩學, reverse poetics)으로 유명한 «반전 게임 과 단편집(The Reverse Game and Other Stories 1981)»이 있다.

24) "The journey of new research consists in looking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25)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 (Martin Heidegger 1889 -1976) "초월적 사상은 세계를 움직인다. 거장 시인 단테도 '사랑은 세계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문화의 뿌리와 접하게 되면서 탄생되었다면, '사물놀이는' 일본 강점기로 인하여 한국의 뿌리가 말살되고 일본식 신문화 강요를 받았던 시대에서 한국인들은 그 자신의 정체성을 고수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며 지키려 했던 실뿌리라고 하겠다. 이 허약하고 가는 뿌리가 갈망·억압이라는 토양을 만나게 된다. 그 결과로 인해 그 시대에 맞게 새롭게 탄생시킨 형태의 한 대중 문화이다. 한국의 정서를 대표하고 한국인의 DNA라고 할 수 있는 전통 악기를 매개체로 삼고 악기의 얼을 살리며 실뿌리를 고수했다. '자연관·우주관'을 대표하는 자연을 닮은 4가지 악기 선택은 말할 것(26)도 없고 한바탕 판을 깔고 흥을 돋우며 한국 고유문화 정신인 가·무·악(歌·舞·樂)을 새롭게 상상하여 탄생시킨 것이다. 남녀노소, 연령 구별없이 각 개인이 가진 감정을 토대로 악기로 리듬을 맞추고 희로애락을 푸는 이 문화는 바로 걸어 다니는 박물관 각 주체에 공존하고 있는 리즘식 문화가 상상 되어 만들어 낸 한 형태의 예술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세계적인 K-Pop의 열풍을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그 예술성을 좀 더 올바르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K-Pop의 탄생은 한국의 전통적인 음악 '판소리'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즉,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판을 깔고 장구와 소리꾼만 있으면 퍼포먼스가 가능했던 이 전통이 이국적이고 자유분방한 표현력 소화 능력이 함께 만나 서로 침투하여 만들어진 새 장르 음악이라고 할 수 있겠다. 대부분의 K-Pop의 멤버 아이들은 한국 문화에서 찾을 수 없는 문화요소를 타국 문화 접촉을 피부로 직접 부딪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지에서 체류하며 이국적인 문화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 이것은 곧 외국어 구사가 능숙한 젊은 예술가들이 그 언어가 표현하는 다른 문화의 특이성을 리즘식으로 자연스럽게 접목할 수 있는 토양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 공간 속에서 한국의 정서와 혼을 불편함 없이 재 상상해 살릴 수 있는 시공간을 함께 공유했다는 결론이기도 하다. 한국의 고유문화 정신인 가·무·악(歌·舞·樂)이 갖든 풍부한 예술을 외국어 문화 침투 및 새로운 이국적 감정 표현 방식 등을 통해 다양한 음악성으로 연출, 구사하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는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예술 시흥을 최대한 살리게 됨과 동시에 새로운 '상생'의 한국 문화 정서가 지닌 새로운 예술 형태의 탄생을 보여 주고 있다. 한국 음악역사 이래로 세계적으로 새바람을 불러 일으켰던 사이의 '강남스타일'을 생각해 보자. 이 곡이 세계적으로 신선한 돌풍을 일으킨 요점 중 하나로 한국어의 '오빠'가 스페인어의 '오레 (olé)'라는 감탄사와 유사한 억양, 톤, 느낌 때문이라는 소리가 있다. 오빠라는 단어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 언어적 표현 자체의 친밀감이 갖는 영향이 컸다는 소리이기도 하다. 또한 K-Pop 노래의 가사를 살펴보면 전형적인 문화 정신인 '교훈·모랄이 숨겨진 현실 구사'를 대표한다고 하겠다. 얼 "창조적 시학(27)"으로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 일본 문학 학자 마이너 (Earl Miner) 연구가 말을 빌리자면, 한국 문학은 궁극적으로 교훈적 모랄(28)을 정수로 삼는 시학을 갖는다고 했다.

끝으로 한류를 상징하는 김치를 예를 들어 보자. 김치는 왜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일까? 소금물에 절여 발효시킨 음식을 대표하는 이 요리는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에서도 그 전통을 볼 수 있다. 특히 불가리아 음식 중에 고추가루와 생강이 제외된 소금물에 절인 야채 음식이 전통적인 음식이다. 이런 유사한 문화 성격 때문에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김치의 인식이 쉽게 정착되고 있다.

한국의 문화 뿌리는 어떻게 뻗어 내려와 세계로 향해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보았다. 한국은 한국인 각 개인이 갖고 있는 뿌리를 해외 어느 곳이나 어느 시대에서나 다른 토양에 접했을 때 그 토양이 뿌리에게 영양분을 주는 것을 흡수하면서 지켜 왔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각 지역 토양에 있는 다른 뿌리를 가진 자들에게 접목할 수 있는 여지(여운)를 자연스럽게 생성해 왔다고 하겠다. 이는 다양한 문화와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수록 문화의 '공존'과 '공생'이 자연스럽게 조화·융화되고 이 과정 속에서 동시대적으로 새로운 '상생'의 요소를 찾게 되어 문화 돌연변이를 하게 된다. 이 문화 돌연변이는 지속하고자 하는 전통을 새로운 감각으로 표현하게 해서 이어 내려가게 하는 저력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세계적인 한류풍의 흐름을 물과 토질이 다르기에 '굴이 회수를 건너면 탕자가 된다'라는 말을 거꾸로 느끼게 해 주는 좋은 예가 되고 있다. 이 말은 한류가 세계의 민간인들이 자발 수용 통로인 인터넷이라는 넷 워크라는 공간을 통해 손쉽게 민간 차원에서 배급되어 시간을 공유한다는 특색 또한 지켜볼 만한 특성이자. 언어와 인종, 전세계 어디에서나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이라는 도구 공간을 통해 시간을 공유하는 대표적인 현상이고 이 속에서 한류가 침투하여 소화되어 상생해 가는 과정도 매우 다채롭다는 것이다.

4. 결론

위에 언급한 작가들은 한국의 문화가 세계속에 공존하는 요소를 뿌리로 어떻게 상생하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알레고리즘, 은유법과 비유법을 사용하여 독자들이 스스로 작품 속에 뛰어들어 가 주인공들 입장에서 생각·행동하게 한다. 이런 화법을 얼 마이너는 창의성 시학 (poetic creativity)이라고 불렀다. 문학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고도 상생 수준에 이미 상승한 다양한 신화, 역사, 전설 이야기들 속에서

26) <https://www.kocis.go.kr/koreanet/view.do?seq=5118>: 팽과리는 천둥, 징은 바람, 북은 구름, 장구는 비를 상징하며 북과 장구는 가족으로 만든 타악기로 땅의 소리와 징과 팽과리는 쇠로 만든 타악기로 하늘의 소리.

27) Earl Roy Miner(1927-2004), Poetics of creativity.

28) Ttropical Method of Interpretation

인간들은 각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삶의 조건을 탐색해 왔다. 이것은 이미 부여된 조건 속에서 행동하고 선택하는 인간의 모습이 이미 제시된 우주적 보편성을 갖는 공간에서 각 개인이 간접적으로 자체성과 주체성을 투영해 보려는 의도이다. 이 과정에서 옳고 그름을 떠나 투영된 실질 자아의 모습에서 감정의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 이 공감 공간에서 '혼자 소외되고 고립되어 예외적인 삶을 누린다'는 자책에서 벗어나려는 사회 심리적 정신 태도를 보인다. 이 공간에서 자아 즉 소우주는 대우주에 포함된다는 위로를 받게 되며 언어와 인종, 문화 형태는 달라도 '지구촌 한 가족'이라는 문화 보호막을 형성하게 된다. 이 보호막은 그리스 문화가 신화 속에서 보여 준 것을 지금까지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같은 뿌리를 가진 '형제 가족의 다양한 삶'이라는 진리로써 인간의 행위를 신성한 경지의 감정까지 생성·상생화해 주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 보자면 케이팝에도 이런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케이팝은 한국의 미²⁹⁾를 그대로 느끼게 해 주는 한 부분의 예술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케이팝 구성원들은 아이들이다. 키, 외모, 나이는 물론이고 하물며 헤어스타일까지도 심지어 똑같은 모습에 질리기까지 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을까? 케이팝은 시각적으로 보는 공간에서 보여지는 시각적, 청각적 연출에만 가치를 두면 케이팝의 예술성을 완전하고 올바르게 이해하기 어렵다. 케이팝이 갖는 장르의 진정한 가치는 공간/퍼포먼스 속에서 각 관객에게 개인적인 시간을 찾아가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케이팝의 매력은 시각으로 시작되는 아이들이 무대, 음악, 의상, 연출법 등 외적 조건이 서로 잘 어울려 한 공감대를 형성해 주는데 있다고 하겠다. 이 공감대를 통해 어떤 퍼포먼스를 느끼게 해 주는가에 그 케이팝의 예술 가치 열쇠가 달려 있다. 관객은 펼쳐지는 무대 퍼포먼스의 공간에 자신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는 찰나 보편적으로 공존하는 요소를 쫓아 마르셀 프루스트³⁰⁾식의 농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거나 환상/꿈을 꾸게 된다.

케이팝의 아이들은 한국의 감정·혼³¹⁾을 음률과 율동을 통해 표현하려는 시간 예술 재생성화 공간을 관객들에게 부여해 준다. 즉 아이들 퍼포먼스를 관람하는 청중들은 착각을 하거나 환상을 갖게 된다. 즉, 연출된 퍼포먼스에서 그려지는 감정·감성에 '자아'를 투영하게 되는 것이다. 이 순간 착각·환상은 공간을 통해 시간으로 가는 공존과 상생의 흐름에서 해석해야 한다. 장자의 호접지몽³²⁾이 지니는 요소가 케이팝 속에도 잔재·공존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하겠다. 장자가 보여 준 '나'가 '아닌 나'³³⁾와 꿈과 현실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케이팝 퍼포먼스에서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 정신 심리학 측에서 보면 '장자의 꿈'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순간으로 이 세상 어디에서도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행복의 추구가 가능한 공간이다. 이 '완벽한 미'는 인간의 감정이 최고 경지에 도달했을 때의 선이다. 이 경계선은 '보이지 않는 문'으로 '돌발 우연성'과 '예측 불가능³⁴⁾'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글시상 (Glissant)이 주장한 '크레올 문화' 성격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장자의 보이지 않는 문은 카프카의 심판의 문과는 다르다. 장자의 문은 특별한 조건이나 신분, 상황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허용되는 문이다. 단지 개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넘어설 수 있는가에 그 의미가 있다면 카프카의 문은 자아 앞에 세워진 문으로 그 문밖에 숨겨 있을 인류애의 희망과 신비한 경지의 세계가 현실의 세계와 서로 대비하는 상황의 순간을 그리고 있다. 장자의 꿈은 또한 불교에서 말하는 나와 자아가 일체화되어 새 공간으로 상생한 것인데 보통 '초월'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우주관·세계관은 기존 공존 문화가 생각 밖의 요인들로 인해 돌연변이화 하여 새 문화로 상생하는 성향을 지니서 항상 '변화 중(mutant)'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글리상이 이 문화의 변화 성격을 '문화의 크레올화 현상³⁵⁾'이라고 불렀고 다른 문화 형태에서는 볼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아홉'이라는 숫자가 구운몽에서 성진이 8명의 선녀를 세속에서 만나 생활하며 겪은 경험 후의 깨달음을 얻은 것을 나타낸다면 데우칼리온 (Deucalion)³⁶⁾ 배는 9일을 거친 파도에서 건디어 낸 것을 의미하고, 데메테르³⁷⁾는 9일 동안 밤낮없이 페르세포네³⁸⁾를 찾아 헤맨 것을 의미한다. 또한 아일랜드 문화에서도 숫자 9는 시적 영감³⁹⁾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장자의 호접지몽은 다시 이광수의 꿈에서도 재 연출되었다.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서양 작품에서도 이런 공존 문화 요소가 작품 속에 많아 보이고 있다. 호메로스의 율리세스가 '아무도 아닌 자'⁴⁰⁾라고 자신을 소개하며⁴¹⁾ 마치 자신의 이야기 속으로 다시 무명의 타인으로 주인공이 되어 칼립소⁴²⁾의 섬에 억류 당한 이야기 등을 들려준다. 시간

29) 내·외적으로 완벽에 도달한 형태의 송고한 극치의 미 감각을 고도로 느끼게 해주는 열락·환락의 순간.

30) Marcel Proust(1871~1922)의 «Du côté de chez Swan», «Swann's Love»과 함께 소설 속에 소설로 유명한 «À la recherche du temps perdu(Search of Lost Time)»

31) 파토스(pathos)는 일반적으로 청중의 감성에 호소하는 것으로 그리스신화의 파토스, 일본의 '모노노 아와레 (物の哀れ)', 한국의 정서 '한'을 들 수 있다.

32) 호접지몽 (胡蝶之夢)

33) 자아가 자아를 부정하는 선에서 자아와 비자아가 동일시하는 선을 말한다. Das Unheimliche는 꿈·가상과 현실의 경계선 관계로 볼 수 있다.

34) unpredictable (l'imprevedibilità) e imponderability (l'imponderabilità)

35) Édouard Glissant은 카리브해 문화는 예측 불가능한 성격으로 인해 창조적 시학이 연출된 대표적인 문화이다. 창조적 시학은 새로운 시적, 문화적 창조물이고 이 현상을 크레올화 현상이라고 했다. 이 현상은 다른 문화에 비해 예측 불가능한 부가 가치를 갖는다는 점이 특색이다.

36) 로버트 크라비스의 그리스 신화 (Robert Graves (1895-1985, The Greek Myths)

37) Demeter or ceres

38) Kore or Persephone

39) 보인 (Boyne)강에 있는 전설적인 분수(Dinnshenchas)에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9개 땅콩 조각은 아일랜드 음유시인들이 시적 영감 소재로 얼마나 땅콩과 숫자 9를 애호 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40) Oudeis in Greek, Nessuno in Italian, Nobody English

속의 공간은 나와 자아를 투영할 수 있는 거울 역할을 한다. 거울에 투영되는 나는 본래의 '나'가 아닌 '행복을 쫓는 한 나의 존재'이다. 그래서 또한 나르시소의 거울 물과도 그 성격이 다르다. 나르시소는 자신의 욕망을 물거울에 비친 모습에서 찾으려고 했다. 그래서 결국 자살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졌지만 이를 수 없는 사랑을 극단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케이팝의 공간은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완벽한 행복의 존재가 있었다는 '기억'의 공간이며 순간순간마다의 새로운 기억을 재생시키는 상생 역할을 한국인뿐만 아니라 그것을 갈망하는 세계의 각 개인에게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이 공간 속에서 각 개인은 각자가 추가 또는 찾는 시간을 공유하도록 하고 있다고 본다.

문화, 예술에서 보이는 공존, 공생 요소는 각 개인이 문화 뿌리의 실뿌리라는 자각이 중요하다. 각 개인 실뿌리가 자체성과 주체성을 고수하면서 다른 실뿌리를 존중할 때 공감·공유라는 감정 매개체를 통해 공존과 공생이 있는 시공간으로 이전시켜 준다. 타 실뿌리와 만남은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하고 공존과 공생을 느끼는 감정이 길어지면서 공간이라는 것으로 상생하게 되며 토양이라는 조건으로 갖추게 된다. 이 토양에서 다시 예상 불가능한 크레올 현상을 통해 창조적 시학적 요소가 있는 시공간을 거친다. 새롭게 생성된 유아독전적인 문화는 시공간을 통해 전통화 되며 다시 공존화 하려는 경향을 가지며 공감, 공생으로 상생하게 된다. 결국 공생, 공존, 상생은 예측 불가능한 시공간에서 서로 밀접하게 공생·상행하는 문화적 역할의 성격을 갖는다. 각 문명의 특색은 각 개인이 모두가 문화의 뿌리임을 자각할 때 이루어진다. 또한 리좀(rhizomatic)식 문화 교류점에서만 문화 공존·공생은 '상생'하게 된다고 하겠다.

한국의 문화 뿌리는 어떻게 뻗어 내려와 세계로 향해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보았다. 한국은 한국인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실뿌리가 다른 토양에 접했을 때, 그 토양이 뿌리에게 주는 영양분을 흡수하면서 보존해 왔다. 이 과정에서 각 지역 토양에 있는 무수한 뿌리를 가진 각 개인에게 접목할 수 있는 여지(여운)를 자연스럽게 생성해 왔다고 하겠다. 이는 다양한 문화와 리좀식 문화 접촉이 가능한 공간이 필요하고, 문화의 '공존'과 '공생'이 자연스럽게 시간 속에서 침투·조화·융화된다. 이 과정 속에서 동시대적으로 새로운 '상생'의 요소를 찾으려 창조적 시학(43)인 문화 돌연변이를 하게 된다.

참고 문헌 (References)

1. *Breve storia dell'estetica*, Elio Franzini, Maddalena Mazzocut-Mis, Bruno Mondadori 2003
2. Apollodoro, *I miti greci* a cura di Paolo Scarpi, tra. Di Maria Grazia Ciani, pubblicato dalla fondazione Lorenzo Valla, 3° ed., Milano, Arnoldo Mondadori 1997
3. Camillo Cessi, *La storia della letteratura greca dalle origini all'età di Giustiniano*, vol. I, Torino, Società Editore Internazionale 1933
4. *Desiderio e filosofia* a cura di Marcella D'Abbiere, Milano, Angelo Guerini 2003
5. Domenico Musti, *Storia greca-linee di sviluppo dall'età micenea all'età romana*, Bari, Laterza 1994
6. Earl Miner, *Poetiche della creatività*, tr. it. di Gian Paolo Castelli, Roma, Armando 1999 (in titolo originale *Comparative Poetics-An Intercultural Essay on Theories of Literature*,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7. Édouard Glissant, *Poetica del diverso*, Roma, Meltemi 1999
8. George Steiner, *Dopo Babele*, Milano, Garzanti 2004
9. Hahm Chai-bong, "The Confucian Political Discourse and the Politics of Reform in Korea" in *Korea Journal*, Voll. 37, no.4, Winter 1997, Seoul,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10. Jean-Paul Sartre, *La morte nell'anima* a tr. it di Giorgio Monicelli, Milano, Arnoldo Mondadori Editore 2001
11. Joseph Campbell, *Mitologia Orientale "maschere di Dio"*, tr. it. di Claudio Lamparelli, Milano, Oscar Mondadori 2005

41) 오디세우스는 자신을 "아무도 아닌 자 Nobody"라고 부르는 폴리페모스(Polyphemus)와 결정적인 만남을 갖는다. "나는 이름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습니다..."라고 하며 자신을 소개한 것은 인생의 고난 앞에서는 오직 자신의 함과 인내에만 의지해야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보편적 공존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42) Calypso

43) 얼 마이너(Earl Roy Miner 1927-2004)의 창조적 시학(詩學. poetics of creativity),

12. Luigi Enrico Rossi, *La letteratura greca* a collaborazione di Roberto Nicolai, Firenze, 2^a ed., Le Monnier, 1999
13. Martin Heidegger, *Essere e Tempo*, tr. It. di Pietro Chiodi, 11^a ed., Milano, Longanesi 1995
14. Maurizio Riotta, *Mogli, mariti e concubine*, Palermo, Novecento, 1998
15. Michail Bachtin, *Estetica e romanzo*, Torino, Giulio Einaudi editore 2001
16. Omero, *Illiade*, tr. it. di Vincenzo Monti, Milano, 1^a ed., Biblioteca Universale Rizzoli 1990
17. Omero, *Odisea*, tr. di Rosa Calzecchi Onesti, Torino, 11^a ed., Giulio Einaudi Editore 1989
18. Paek Chong-hyun, "the Reception and Development of German Idealism in Korea", in *Korea Journal*, voll. 39, no. 1, Spring 1999
19. Robert Graves, *I miti greci*, Milano, Longanesi & C., XIX ed., 2005
20. Roger L. Janelli e Downhee Yim Janelli, *Josang guiryewa hankuk sawhoi*[La cerimonia ancestrale e la società coreana], a tr. coreano di Kim Song-chul, Seoul, Iljogak 2000 (in titolo originale *Ancestor Worship and Korean Society*,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2)
21. Song Young-bae, "Confucian Response to the Shock of Western Culture: From Orthodox Resistance to Confucian Reformative Visions", in *Korea Journal*, voll. 40, no. 2, summer 2000
22. Tonino Puggioni, Antonio Tescari, *La Corea di ieri e di oggi* a cura di Enrica Collotti Pischel, Milano, Franco Angeli 1998
23. Walter K. Lew, "Yi Sang's perpetual Audacity", in *Coreana*, voll. XIV, no. 4, Winter 2000, The Korea foundation
24. Walter. F. Otto, *Gli déi della Grecia-l'immagine del divino riflessa dallo spirito greco*, tr. it di Giovanna Federica Airoldi, Firenze La Nuova Italia editrice 1941

한국 참고 문헌 (References)

1. 정찬, 수리부엉이, 한국소설 문학대계 84권, 동아출판사 1995
2. 정소성, 아테네 가는 배, 제17회 동인문학 대상 수상 작품집, 문학사상 1985
3. 최윤, 하나코는 없다, 1994년도 이상 문학상 수상 작품집 1994
4. 김성한, 바비도, 우리시대의 한국문학 29권, 계몽사 1995
5. 송원희, 나폴리 유정, 한국문학 32권, 어문각 1989
6. 이문열, 칼레파 타 칼라: 아테르타 비사, 제3세대 한국문학 24권, 삼성출판사 1989
7. 이병주, 알렉산드리아, 살아있는 한국문학 3권-이병주 대표작, 책세상 1994
8. 이승우, 미궁에 대한 추측, 1994년도 이상 문학상 수상 대표집 1994

참고 문헌 (review and article)

1. 정과리, 시간의 한 연구: 기억과 변신 1995 (정찬의 수리 부엉이 관련)
2. 권영민, 작가 정소성과 소설의 길 1985 (정소성의 아테네 가는 배 관련)
3. 최일남, 베네치아의 안개와 미로 1984 (최윤의 하나코는 없다 관련)
4. 김경수, 액자소설의 변형과 독법에의 자의식 1997 (최윤의 하나코는 없다 관련)

5. 김윤식, 관념에 작은 틈을 내는 다이아몬드 같은 글 1995. 관념적 글쓰기의 계음 1995 (최윤의 하나코는 없다 관련)
6. 이재선, 삶의 미로 찾기와 코드 1994 (최윤의 하나코는 없다 관련)
7. 이태동, 우친제, 최윤의 작품세계 1994
8. 장양수, 신없는 세상의 황폐, 혼돈, 개탄. 프로메테우스 신화와 김성한의 오분간, 1997
9. 전영태, 김성한 문학과 물의식의 세계 1990
10. 정호웅, 미로에서 길 찾기, 1998
11. 김희보, 한국의 명작 1990
12. 남송우, 인간됨의 가치회복을 위한 모색, 1995
13. 이홍남 외 2인 김성한론 1984
14. 변신원, 남성적 글쓰기와 사실주의 소설. 페미니즘과 소설비평 1997 (송원희의 나폴리 유정)
15. 이보영, 이병주론: 역사적 상황과 윤리 1991
16. 이재선, 담힘과 열림의 상상력: 벽과 감방의 상황과 자유의 몽상 1991
17. 주승택, 이문열과 선비정신 1989
18. 홍정훈, 예술적 언어와 신념의 언어 1985
19. 성민엽, 개인과 자유를 향한 열망 1990
20. 이동하, 이문열의 작품세계 1985
21. 이태동, 한국문학의 현대적 해석 1996
22. 김윤식, 세가지 벼랑 의식론: 이승우, 최윤, 윤후명, 김윤식의 소설 읽기 1995
23. 성민엽, 불온한 문학. 그리고 진실. 이승우의 소설집 1994
24. 조동일, '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미국' 1963
25. 권영민, 한국 시대 문학사 1993
26. Lee In-bok, "Conception of Death in Korean Literature" 1997